디지털 매체에서의 확대해석: 타당성 여부

쇼펜하우어의 38가지 방법

202234904 신연수

1. 디지털 매체의 영향력과 현 상황

현재 디지털 매체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고 있지만 그만큼 부정적인 효과도 같이 불러오고 있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예전과는 다르게 정보의 확산화가 빠르고 손쉽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효과로는 접근하기 쉽고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보를 부풀려 자극적인 멘트로 관심을 끌고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1. 확대 해석의 특징과 예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매체에서의 잦은 논쟁이란 흔히 볼 수 있는 온라인 기사, 유튜브 댓글, 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커뮤니티에서의 논쟁을 말한다. 확대 해석이란, 논리 해석의 하나로 문자를 그 취지에 비추어 통상의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일이다.확대 해석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강조가 있다. 다음은 확대 해석을 이용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한 문장이다. 몇몇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말을 범죄는 지구 전체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만 일부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말로 바꿔 강조할 수 있다. 이러한 강조 효과는 상대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중요도를 높일 수 있다. 단점으로는 과장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있다.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과한 사용은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과장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효과이다. 과한 강조와 광범위한 범위의 확대해석은 아예 다른 문장으로 뒤바뀔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주장처럼 확대 해석은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확대 해석이 논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올바르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다.

1. sns에서의 확대해석

sns에서 확대해석으로 인한 논쟁의 예를 요즘 온라인 어디에서든 심상치 않게 볼 수 있는 남녀 갈등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은 확대해석으로 인한 남녀 갈등 사례이다. 사용자 A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글을 올리자, 사용자 B는 A에게 욕설을 한 여성이 아닌 모든 여성이 문제라는 말을 한다. 그걸 본 사용자 C는 모든 여성이 함부로 욕설을 뱉는 것이 아닌데 모든 여성에게 비난을 하는 모습을 보니, 남자들의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며 싸움이 일어난다. 이 예시에서는 사용자 B의 확대 해석과, 사용자 B를 비꼬며 같이 확대 해석을 하는 사용자 C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넘어갔다면 생기지 않았을 다툼이 확대 해석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확대 해석을 통한 여성 비난으로 싸움이 일어났고 남성의 문제와 여성의 문제 중 무엇이 더 문제인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계속해서 확대 해석을 사용하고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

또 다른 이슈로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관한 환경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논쟁이 가장 잦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해양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는 것은 맞지만, 사실 파괴 원인을 조사해 봤을 때 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1)경기 신문에서 조사한 해양환경정보포털의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생활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도 되지 않는다. 특히, 일회용 접시, 숟가락, 빨대를 모두 합한 비율은 1.7%로 매우 미미하다. 즉, 플라스틱 빨대는 해안 쓰레기의 1.7%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플라스틱 빨대가 해양 생태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는 확대 해석으로 인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다. 유튜브에서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 검색해 보면 거북이의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혀 있는 영상과, 플라스틱 빨대가 바다를 망치는 주범이라는 제목을 꽤 자주 볼 수 있다. 플라스틱 빨대는 해양 오염의 사소한 원인일 뿐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아니지만, 해양 오염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대해 주범으로 만든 후 영상을 올린다. 자극적인 영상과 제목을 보고 사람들은 플라스틱 빨대가 해양쓰레기의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이다. 플라스틱 빨대가 해양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해도, 사람들은 위와 같은 영상, 기사를 가져오며 플라스틱 빨대가 큰 문제라는 주장을 밀고 나간다. 거기서 더 나아가 지구 전체의 환경문제와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한다. 이러한 주장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

1. 미디어에서 확대해석이 미치는 영향

위의 두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미디어에서 확대 해석은 굉장히 자주 쓰이고, 대다수를 선동하기 쉬우며, 내 주장을 밀고 나가기에 최적화된 방법이다. 강조와 부각을 사용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과장된 문장으로 중요도를 높이고 판단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상대를 설득시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논쟁에서 이긴다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이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다.

1. 미디어에서의 확대 해석의 타당성

일반적인 경우 확대 해석은 그다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고 감정적인 교류를 하며 사회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디어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 사회적인 평판이나 지위, 도덕성을 신경 쓰지 않더라도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오지 않는다. 또한 몇 글자를 두들기는 것만으로 상대를 비방할 수 있다. 따라서 거짓말을 일삼거나 남을 비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고 죄의식을 덜 느끼게 된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빠른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과 전에 말한 미디어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확대해석은 악영향을 미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앞에서 말했던 플라스틱 빨대 문제는 현재 심각성이 인지되어 종이 빨대로 대체되거나 매장 내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결과 또한 얻을 수 있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해 논쟁에서 승리했다는 부분에서 결과는 만족스러우나 원인이 잘못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은 논쟁에서 진실되게 승리한 것이 아니며 잘못된 방향으로 빠진다면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주의해 사용해야 한다.

참조

1. [해양 플라스틱 오염 주범은 ‘어구·어망’ (kgnews.co.kr)](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63625)